

# 지역복지 증진 노력 '결실'

### 남원시, 공모사업 선정 '골목놀이터' 주민 호응 단절된 이웃소통에 희망

남원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지역복지활성화사업(총사업비 5,000만원)에 선정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남원시사회복지관이 주최하고 남원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이 사업은 2015년 5월에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인 사업은 노인들 인구가 줄면서 지역이 침체되고 이웃과 소통마저

단절 되어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먼저 인사하기, 우리아이 안아주기, 먼저 칭찬하기 등 초중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발씩 내디뎌 아이들이 운영하는 골목콘서트, 골목장터, 전통놀이터는 학부모와 지역 후원자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지역 호응도 대만족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

놀이와 작은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마주하고 즐겁게 웃고 박수를 치고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웃과의 소통이 더욱 배가 되는

계기 마련이 됐다.

시는 매주 수요일 현안이 되는 사업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정책결정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각종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방안 마련, 우수사례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 등 현안사업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다.

이환주 시장은 "정부는 국고보조 사업보다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자치단체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사업내용을 내실있게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이 21일까지 서울 강서구청에서 이틀간에 걸쳐 직거래 장터를 열고 홍보·판매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심민 군수가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및 생산농가를 격려하고 있다.

## "추석준비 임실표 농수산물로"

### 서울·부산 등 수도권서 우수성 홍보·판매활동

"올해 추석 명절선물은 임실N치즈와 함께 하세요"

임실군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서울과 부산을 누비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임실군은 서울 강서구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서울과 부산지역 일대에서 임실치즈를 비롯, 고품질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군은 21일까지 서울 강서구청에서 이틀간에 걸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이어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광장과 양천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을, 29일에는 부산으로 옮겨 부산진구청에서 고품질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행사에는 임실치즈농협, 임실축협, 생산농가 대표 등 17개 업체가 참여해 임실군 특산물인 치즈, 유제품류, 육류, 전통장류, 한과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강서구청 직거래 장터에는 심민 군수가 직접 방문해,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및 생산농가를 격려하는 한편 강서구청 직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임실군 농산물을 적극 홍보해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행사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서, 도시 소비자들의 추석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열리는 행사여서 명절연휴 기간에 열리는 축제를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앞장 특례보증제 신설 어려움 해소 2년 거주자 3000만원 이내

순창군이 담보능력이 부족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보증제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입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 확대, 창업특례 신설,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 등이다.

신설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융자금 3천만원 이내다.

특히, 금번 새롭게 추가된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청년 또는 귀농인이 1년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친 후 군 조례 심사를 거쳐 11월경에 군 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개인별 맞춤 물리치료실 인기

### 임실군 보건의료원 최신식 장비 도입·운영 연 3만5000여명 찾아

임실군이 민선 6기 공약사업인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 확충사업이 최신식 장비를 갖추어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기존 물리치료실을 리모델링하고, 최신형 물리치료 장비를 도입·운영하면서 연인원 3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는 전기치료 같은 기본적인 치료는 물론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치료와 각종 작업치료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며,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크게 확대했다.

특히 보건의료원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개인별 맞춤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물리치료를 받을 때 자가진단으로 증상에 맞지 않는 물리치료를 할 경우,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처방에 따라야 한다.

물리치료실에는 체외충격파치료기와 TENS(경피전기신경근전기자극기), 감압과전류치료기, CPM(전동식정형운동장치) 등 최신식 물리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도 주민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군은 작년 7월 강진면에 이어 지난 7월 신평면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을 설치했고, 오는 27일에는 운안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은 "질환에 따른 통증 및 변형의 현상이 의심되는 경우엔 신속히 내원하여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줄 것"과 "앞으로도 질병 예방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해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팔덕면 백암마을 전경

## 주거취약지 개선 낙후지역 이미지 탈피

### 순창군 백암마을 사업 완료 생활환경 정비 3억원 투입

순창군이 '백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해 백암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높아졌다.

이번에 완공한 사업은 지난해 전라북도가 주관한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선정하고 약 1년 2개월간 총 3억원을 투자해 완료했다.

우선 크게 변한 점은 비위생적인 마을 도랑 265m를 정비하고 좁은 마을 진입로 및 안길 300m 확·포장, 220m

하수구 개선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한 점이다. 또 주민들의 참여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산나무 주변과 새마을 공동창고 정비 등을 통해 공동체 인프라도 강화했다.

특히 계획단계부터 시공·준공까지 약 20여회의 주민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주민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백암마을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개선돼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추석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남원시 비상진료체계 구축

남원시보건소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진료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기관, 응급의료기관 및 비상진료기관·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여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소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40개 보건기관을 비롯해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등 총 167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진료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속한 안내 및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보건소에 진료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발생 시 종합병원, 병원 및 당직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남원시보건소(☎620-7918, 7919)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경로당 급식도우미 파견 11월부터 동절기 4개월간 실시

순창군은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경로당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희망하는 모든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파견한다.

군은 농촌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평균 75세를 넘는 고령이어서 식사 준비와 설거지 주변청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꾸준한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우미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연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파견되며, 지원 일수와 시간은 1개월에 20일, 화일 수를 감안해 최대 4시간에서 3시간까지 차등 지원한다.

활동비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아 한달에 52만원에서 39만원 안팎을 보수로 받는다. 먼저 여성들 중에서 건강하고 근로능력과 조리 경험이 있는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된 도우미 활동비는 7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군은 특히 급식도우미를 파견할 경우 노인들의 급식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양곡을 추가로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1,222포를 화일 수를 감안해 10월부터 추가 공급기로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경로당을 편안한 쉼터로 만들고, 여성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돼 이 중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